

<2013년9월17일 화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

할렐루야 !

여러분들이 정신이 살아 움직이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시를 하나 읊어줄까요? 잠언 먼저 하겠습니다.

“신령한 기도, 번쩍이는 영감, 번개 같은 실천.”

이것을 시로 한번 읊어 볼까요?

인생

신령한
기도를 하여야
번쩍이는
영감이 오고
번개 같이
실천해야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더 천천히 해줄까요?

인생

신령한
기도를 하여야
번쩍이는
영감이 오고
번개 같이
실천해야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시를 아주 가훈같이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도 써서 이렇게 해놓기 바랍니다. 내가 써서 줄까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왔습니다. 잘 보입니까?

인생

신령한

기도

번쩍이는

영감

번개같은

실천

나도 이것을 놓고 봅니다. 신령한 기도를 해야 번쩍이는 영감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영감이 안 옵니다.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령한 기도를 하려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기도를 새벽마다 해야 됩니다. 신령한 시간은 새벽입니다. 신령한 기도 시간은 새벽에 더욱 강합니다. 아무도 없는 아주 새벽 미명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 하셨지요?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번쩍이는 영감이 옵니다. 하늘 음성도 들리고 깨달음도 오고 그 깨달음을 번개같이 날이 새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번쩍 영감이 왔을 때 바로 안 적으면 사라집니다.

정원에 멋있고 예쁜 새가 순간 날아와 있으면 그때 얼른 사진기를 갖다 탁탁 찍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로 얼른 던져서 잡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빠른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도를 할 때 온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내가 읽어줄까요? 신령한 기도를 하면 시도 오고 잠언도 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신령한 세계로 볼 때 여러분도 보이고 모든 사람이 보입니다. 신령하게 기도하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기도를 할 때 원수들도 보이고 가라지들도 보이고 흑암의 영들도 보이고 제자들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입니다.

그러면 시 한 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시들이 있는데 한 편만 봉독하겠습니다.

홀몸이 아니다

나,
언제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홀로 있지 않다.
하늘과 나
님과 나
항상 함께 있다
나는 홀로 가지 않는다.
하늘과 나
님과 나
세월도 늘 나와 함께 가니
외롭지도 쓸쓸치도 않다

받아쓰기 했습니까?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나,
언제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홀로 있지 않다
하늘과 나
님과 나
항상 함께 있다
나는 홀로 가지 않는다
하늘과 나
님과 나
세월도 늘 나와 함께 가니
외롭지도 쓸쓸치도 않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시들이 한 15편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없고 잠언도 많이 써 봤는데 다 못 읽어줍니다. 앞으로 잠언집이 나오고 시집이 나오면 거기에 나올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같이 따라가다가

도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어떤 자기의 사욕, 사심을 이루려고 좇아 다닌 사람이 있었고, 물질을 향해서 명예를 위해서 따라다니게 되면 따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리지널 절대적인 세계에만 역사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돌과 흙이 다르듯이, 물과 흙이 다르듯이, 기름과 물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 그들만 참 기름이 되고, 정말 하늘에 하나가 되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을 때 가다가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그런 사람에 속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은 옳은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외모가 사람이고 섭리 퍼다 보면 몸단장 할 수가 없고 옷단장 할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실족치 않는 자는 복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보고 가야 했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성경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같은 입장도 그랬습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자요, 지혜자요, 지식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사 쓰면서 거지같이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영생의 말씀만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섭리사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변형해서 모사 써서 다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진리만 보고 가야지 ‘역사가 왜 이렇게 가지? 이상하다. 왜 환란이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장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따라서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향대로 하십니다. 역사의 전체를 보고 세상을 대하면서 하십니다.

그때는 오직 진리만 보고 가야 됩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이 갑니다.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는 영원히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사를 부리시고 여러 가지로 행하십니다. 루터 같은 사람도 시대가 악하니까 머리를 박박 깎아서 중같이 하고 돌아다녔고 어느 때는 머리를 잔뜩 길러서 장발족같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면 “왜 미친 척하고 저렇게 다니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하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자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같이 심정일체 되면 “잘하는 일이어. 잘하는 일이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항상 진리를 보고 중심해서 계속 따라야 됩니다.

우리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오다가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체질에 안 맞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후에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고 상실하면 잘 복직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10년 되었는데 못 돌아오고, 7~8년씩 되었는데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믿음을 한번 상실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못 돌아오는 기간을 ‘형벌기간이다. 믿음 조건 못 세워서 탕감 기간이다.’ 이렇게 성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상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한 번 나가면 한 4년 만에 가끔 하나씩 돌아오고 7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벌기간이라고 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계속 한 번도 변함없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손들어 보십시오. 옆의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온 사람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교회 한 달씩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갔다 오고 그런 것 말고 힘들지만 그냥 꾸준히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형벌기간이 없었습니다. 혼자 힘들고 몸부림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안 나오고 한 달씩 안 나오고 두 달씩 안 나오고 나중에는 그러저러해서 1년 안 나오다 한 3년, 4년 안 나오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손 안 들어봐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지 마세요. 선생님이 창피 주는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아까 손 안 든 사람 중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환란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압니까? 얼마나 의젓한지 압니까? 환란을 이기고 어려운 것을 이기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꼭 나만 부르고 매달리고 나에게 못 와서 안달하지 말고,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못 보는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이 못 오니까 영이라도 가고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때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 역사, 하늘 역사가 가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오나?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값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 압니까? 우리의 죄값은 회개해서 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죄값을 우리가 의인으로서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심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참아주고 대신 고통을 당해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 달씩 기도했는데 그냥 말만 내가 너무 손해가지 않느냐? 나도 진짜 아까운 청년인데...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 교회에 가라. 내가 너 교회 오게 기도했으니까.”

“정말로 그랬나?”

“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달씩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간다고 손해난 것 있어? 너 손해난 것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런 조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려면 세상의 모든 만인의 죄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같이 짊어지고 같이 고통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보면 다 자기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 지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지냐? 지금 어느 때인데, 신부 시대인데 왜 지냐? 십자가 때려 부숴버린다. 싫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영의 세계로 보면 정말 웃음이 킁킁킁 나와줍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쳐주겠습니다. 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하고 둘이 살 때에도 남편의 잘못된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끄꿍 참고 가면 남편이 그 기간 지나가면 그것이 대신 살려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 것을 대신 짊어지고, 선생은 제자 것을, 제자는 선생 것을 짊어지고 서로 참고 하면서 그 보람을 후에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짊어지고 대신 갈 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성황당 넘어 다니다가 할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의 짐이 무거운 것을 보면 내가 꼭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너무 수고했다고 내가 뭘 줘야 되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보람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신 짊어지고 갈 때에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찢값을 대신 짊어지고 회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자꾸 욕이나 하고 자꾸 나쁘다고 하면 그 놈의 찢값을 어차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짐을 죄인이 짊어지면 구원이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의인이 대신 짊어지고, 그들

로 와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대로 생활 속에 말씀을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가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충만함에 이르게 영생의 말씀 안에 복도 받고 이상을 이루며 경제 축복도, 건강 축복도, 신령한 축복도, 그리고 땅의 이상의 세계의 축복도 받고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지어다. 아멘.